

90년도 총학생회 선거결과 해부

신윤호
(대학점원 기자)

90년도 학생운동의 향방을 가늠할 대학 총학생회장선거가 20일 현재 전국 94개 대학을 51개 대학에서 끝났다.

대학의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장은 어떤 총학생회장 선거 결과는 총학생회장과 교수총회장에게서 나타나 학생운동의 위상을 수렴한다. 이는 총학생회의 민주적 운영방식과 아울러 총학생회 조직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당선되는 수혜가 그 특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올해 총학생회선거가 집행부 중심이냐 학생대중의 구별을 가졌느냐 학생대중의 의사가 수렴되는지 않은 채 우익이 권력권과 노동자·농민운동 기층운동가들의 연대사업이 있어 표면상으로 연대들을 갖추었으나 실제적인 내용은 있어 공권한 연대교리를 형성하지 못한 반성과 대안이 담

대학의 공개조직에서 주사파를 주된 타깃으로 삼았던 지도부의 수혜 및 집권자들이 시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열정적으로 위촉자를 가져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선 올해 NL계열에서 추진한 조국통일부흥이 현실적 기반이 고리였다는 것은 낭만적인 측면이 있었다.



▲대학 선거구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학생들

관제언론, 두계열 주도권 쟁탈전으로 매도 건강한 사상투쟁 통한 학생운동 성장 계기돼

아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동안 서로 다른 집회를 가진 정도로 입장차이를 드러내던 민족해방론(PD)계열과 민주민주주의론(NL)계열의 정치적 입장차이를 넘어선 통합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학생대중의 의사가 수렴되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는 전대별의 성격을 규정짓는 수렴현상의 선출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당선된 51개 대학 총학생회장 당선자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략적으로 분류하면 NL계열이 21개 대학, PD계열이 9개 대학, 나머지 21개 대학은 비운동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NL계열은 주도권이 있어 학생운동의 수혜를 얻었다는 주장과 PD계열은 주도권이 없어 학생운동의 수혜를 얻지 못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지기가 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자평과 평가와 동시에 당면과제로 제기되는 전대별전선을 위한 노력에 무게를 집중함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번 선거에서 NL계열은 ▲장주-5중비로문제가 될 6중화국의 중심고리이므로 공판정부를 본래할 수 있는 동력구기되고 ▲전두환-이승찬의 구국투쟁을 계승, 노태우의 퇴진과 함께 나간 것을 주장했고, PD계열은 ▲비운동권단위의 성장과 그 계급적 의의의 폭로, 기층운동의 투쟁을 지원하고 ▲민중운동의 전진적인 연대투쟁으로 전대별전선을 대진함으로써 정세발전의 계기를 창출해 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NL-PD계열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사상투쟁의 일환으로 총학생회장선거기간에 내내 제도권면에서는 주도권쟁탈전으로 매도함으로써 두

계열의 계기와 함께 현대공공, 전조조세제를 공격적인 사상에 결집된 대중화제 하고 공안당국탄압의 발목을 조여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PD계열은 그들대로 학생대중이 NL계 전대별의 투쟁에 열정을 보이고 있어 자신들의 승리가 무난할 것이라는 예조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에는 훨씬 못미쳤지만, 서울대를 비롯한 9개 대학에서 당선된 결과에 열을 높고 그나마 학생들의 지기가 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자평과 평가와 동시에 당면과제로 제기되는 전대별전선을 위한 노력에 무게를 집중함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점을 80년대 중반 사상투쟁이라고 불리웠던 학생운동대부의 치열한 이념논쟁이 '자비한' 민주주의의 분열, 대립'으로 평가했던 당시 언론의 시각과는 달리 학생운동의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감안해 볼 때 현재 학생운동에 존재하는 정치적 입장차이 또한 90년대 학생운동의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한 양그룹의 후보들 또한 대부분이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어느 한계파와 분열이 아닌 전체대중의 판단과 그에따른 의사와 요구이며 실용적인 정치적 입장과 사명관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학생대중의 다수의견이라면 얼마든지 그 결정에 따라야 함을 강조한 점이 중요한 인식상의 특징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현상은 NL-PD계열의 결합의 측면보다 이른바 학원내 비운동권 후보들의 대거참가였다.

문교부와 경찰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비운동권학생이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대학은

에서 학생대중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무엇보다도 NL-PD계열과의 연합관계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즉 학생운동권사이에 있어 원칙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히 독자적인 노선을 전제하되 타협에 따라서는 공동투쟁의 실현을 위한 노력도 보인다.

그러나, 참관한 사안에 따른 노선전환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때때로 집권적인 대립으로 표면화되면서 일반 학생대중들에게 심정적으로 충격적인 인상을 주었기 이러한 점은 이번 선거에서 부각적으로 작용한 점도 간파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점들이 비운동권후보들이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되었고 그들의 당선을 가능케 한 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비운동권후보들의 당선은 전대별의 각 지구별 협의의 격나 연합제에 이들이 대의원과 제2차 참가하게 될 때 현재 추진 중인 전진, 전향이라는 조직화대 개편에 심각한 장애를 작용할까 따라 일정정도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생운동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 왔던 서울전진대회와전대별 PD계열이 강세를 보이는 지난과대학 학생회장들의 참여를 감안해 볼 때 단일대오의 형성은 학생운동권이 풀어야 할 과제도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권이나 전대별이 민주적인 논의와 의사결정과정 등을 거치는 만큼 전진전선 결핵은 별무의미이 진행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으로 유명한 플라톤은 정통독수신인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엮은 플라톤의 대화록이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때때로 스승의 학문을 비평하고 스승을 비판하는 데도 서슴치 않았다. 스승에 대한 불경한 태도를 흠잡는 제인(제인)은 대개 「제리는 스승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한다. 사당학의 기초를 담은 그들 후세는 만학(萬學)의 아버지로 추앙받는다.

대 로마제국을 건국한 독재관(獨裁官) 시

구한말 의병장 왕산(旺山) 허위(許蔭)

이제는 브루스에 의해서 압살된다. 이 소식을 접한 로마 시민들은 분노하여 브루스에게 달려들었다. 노한 군중 앞에 당당하게 나선 그는 한 마디로 이들을 진정 시킨다. 「나는 여러분들 이상으로 이것을 사랑하고, 그러나 로마를 나는 더 사랑한다!」

시대는 인물을 만든다. 시대가 만든 인물은 그 시대를 제창하여 자신을 탄생시킨 시대에 부사한다. 우리에게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허위(許蔭)는 인물이다. 구한말의 의병장이었던 그는 1855년(철종 6년)에 경북 선산(善山)의 유가(儒家) 명문에서 태어났다. 학적명은 유충현(兪忠顯)이다. 그는 스승 이전에 제자(諸子)로 불렸었다. 손자(孫子)를 뜻하는 병(兵)을 뜻하는 1897년(광무 21년) 이은환(李恩煥)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금산과 정주에서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웠고, 고종이 해산

명하 이을 받아들이 귀향하였다. 이을 때 조정을 받고 상경하여 충주현(忠州縣) 등을 거쳐 창무 8년에 의정부 참찬(參贊)에 임명되었다. 1905년 「유사(遺事)」에 의하면 이을은 이을을 반대하는 격문을 올리다가 인제에 제로된 후 그들의 최후적으로 칙임관(勅任官)에 임명되나 거절하고 낙향한 그는 고종으로 부터 「의거(義舉)」라는 말(號)을 받고 다시 의병을 모아 경기도에서 거병(擧兵)하였다.

허 위는 1907년 이 인영(尹鳴) 등과 함께 전국 의병연합회를 조직하여 순친을 거쳐 의정부 참찬에 있는 외국 영사관에 서한을 보내어 한국군의 정식 발족을 선언하였다. 이때 부친 사망으로 급거 귀향한 이 인영을 이어 의병의 군사장(軍師)이 된 허 위는 이을을 이을을 도와 의병을 활판하기로 결의 하였다. 그는 3백 명의 선발 장병을 이끌고 동해안 방면에 이르렀으나 일본군에 의해 후속 부대가 전로를 차단당하자, 이들은 고군분투 끝에 모두 옥쇄(玉碎)하였다. 허 위는 제초되어 계관(戡亂)에 아바지로 추방된다.

이을을을 거두다가 결국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소극하여 일생을 마쳤다.

구한말의 의병이 가장 한국적인 선비정신을 상징한다면 허 위(許蔭)의 의거는 한국정신을 극명하게 표현한 한 예가 아닐까 한다. 이 분의 호가 바로 왕산(旺山)이다. 계가문을 거쳐서 동해안에 이르는 도가 허위의 높은 뜻을 기려 뒤늦게 「왕산로」로 명명되었다. 허 위와 왕산의 의거는 왕산정사의 관련 여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허 위가 경기지방에서 거병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왕산을 염두에 둘 수 있었고, 왕산 정사의 용인-봉주-천진-관-관지 등이 해동로 전 통로에 향방을 이루고 보면 허 위와 허위가 이룩한 의거를 향방을 향한다. 왕산로에 향방을 향하는 허 위는 이제 창성 10주년을 맞은 우리의 아름다운 왕산정사를 넘나들면서 그 옛날을 회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청소년모임이 생겨나고 있고 그중 하라소 최근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이 「푸른나무 이야기모임」이다.

지난 88년2월 모임이 구성된 후 달리는 지방을 비롯, 서울에서 약 7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일반 회원인 「일세」 회원, 모임의 실무를 기획, 조정하는 「모기」회원, 그리고 본모임을 거처한 선배들로 구성된 「뿌리」회원으로 나뉘어 활동을 하고 있다. 모임활동은 크게 5개의 분야활동으로 조직되어 이루어지는 데 문예, 문학, 문학작품발표, 시청각매체, 교육구반으로 구분되어 정기적 집단토론회, 연회, 분회, 창작활동을 벌여나가고, 이를 통해 모임의 가장 큰 사업이라 할 「푸른나무」, 「3호를 낸 「푸른나무」는 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문예를, 청소년 문화평론, 만화등 다양한 문예로 이루어져 있어, 회원들 스스로 기획을 준비하고 철저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해내고 있다. 「푸른나무」의 기획을 통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푸른나무」의 기획을 통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푸른나무」의 기획을 통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자는 사대적태도문화의 침략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화원은 「모든 모임이 그러해야 하겠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문제를 누구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문예와 학술토론회를 통해 스스로 깨닫고자 한다. 나라이기 모임이 청소년대중조직으로 삼자 이들의 주체적인 역량과 사상을 이 문제와 개인적 활동을 넘어 대중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모임의 회장인 이계숙(인



▲가정교수들이 모여서 사회를

남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활동의 제한들이 오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대를 전 문예인 입시위주교육의 폐해를 인식하여서는 커녕 오직 학원생각으로만 고도의 학생들은 활동의 자유를 스스로 주체적인 역량정착을 스스로 가라박는 큰 결집점이 됩니다. 이러니 거꾸로 모의들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중고학생이 일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야 하는 진정한 학교교육의 과제와 부합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시대의 자주-민주주의의 정당한 질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기인할 때 보다 이러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당연한 것이다.

임시만을 추구하는 교육목표에 청소년의 많은 장래의 가능성이 막히게 되고 극단적으로 사회문제인 청소년범죄·자살로까지 치닫는 사태를 감안한다면 「푸른나무이야기모임」이 갖는 이러한 건강한 몸짓은 이제 더 이상 고착화되어 사회전반적 정서적변환으로 우리 이들의 활동구지가 주목된다 할 것이다. (김창섭 기자)

Yes, I Can!

Yes, I Can! 영어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이 아닙니다. 일일이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도 저 혼자 알아서 끝내주는 혁신적인 진공청소기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리모컨을 눌러주면 전진, 후진, 좌우, 회전까지 모든 것이, 관頭的 같이 조절도 자유로이...

스스로 움직인다 해서 자주형(自走型) 진공청소기/대우전자기 흡입력이 추후에는 하이터치(Hi-Touch), 2대표적인 결정체(結晶體)종의 하나입니다.

하이 테크놀로지에 "더 편리하게 살고 싶은" 인간 내면의 욕구를 통해 (88년),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제품들을 탄생시켜가는 하이터치의 세계, 기술과 정신의 결합을 통해 대우전자가 제시해가는 "인간기준"입니다.

대우전자

●자주형(自走型) 진공 청소기

제27회 외대문학상 가작

희곡부문

법 통합에 전이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드의 상황과 같이하게 다루고요.

(어기서 그들에게 비웃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앞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만 학생 7, 8, 1, 2, 3이 한사람씩 구호를 외치고 지나간다)

학생 7: 민주인사를 죽자 석방하라!

학생 8: 반민주적, 반인륜적 학살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학생 1: 오한주의 관문점 통과를 막자!

학생 2: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조국 통일 앞당기자!

비서A: 피하는 것인가요?

비서B: 사직서를 쓰고 있습니다.

비서A: 누구마음대로 사표를 쓰나?

비서B: (특별히 보고) 당신들과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때만 해도 나들대로의 특성이 있었지만, 「조선주의」에 종속성을 가진 당신들의 경직된 사고가 싫었지만, 국가의 존속을 위해 누군가는 이런 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양심을 달래 줄 수 있었다. (고개를 흔들며) 내가 어리석었소. (편을 돌고서) 이제는 다 끝났소이다. (돌아서서 나가려고 한다)

비서A: (편을 돌려) 장진을 하

야! 제발 그 피스들을 치워주세요. (B가 위협적으로 손에 힘을 준다)

비서A: (부르르 떨며) 응시해 주게. 내가 잘못 했어 (무릎을 꿇으며) 내 이렇게 빌겠네. 각하께서 들어오면, 나도 자네의 주장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보고를 하겠으니 제발 살려주세요.

비서B: (이들 악물며) 비굴한 놈! (방아쇠를 당긴다)

(바닥에 쓰러지는 비서A. 크게 심호흡을 한 B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다는 듯자리에 담배를 피워 쏜다. 문이 들어오는 정보부장)

비서B: (충을 들고)어서 오시오. 권력을 그리는 해바라기 선생!

군중에 항의한 것은 60만건이요, (침을 삼키며) 누가 봐도 휴전협정위반이라는 명분은 구시대적 학살이란 말이요. 더군다나 군사정권협정의 서명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조진민주주의 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평택리,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국군사령관 마크. W. 클라크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못) 당사자인 우리가 서명도 하지 않은 휴전협정이 어디 있던 말이요? (충을 든 채 부장에게 다가서며) 설혹 성립한 휴전조약을 내세워 통일을 강요하는 민중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소? (혈박박) 수상에 전화를 하시오. (충을 물리며) 들어대버! 어서! (담을 흔들며 수화기를 드는 부장) 오한주의 관문점 통과를 허락하라고 말해!

부장: (다들거리며) 수상각하! 정보부장입니다. 아무래도 오한주의 관문점 통과를 열어주는 것이 현명할 판입니다. 평소 애용하시던 선전하신 바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제 개각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충을 가리키며) 하지만 지금은 때가 때인만큼 허락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비서B, 부장이 전화를 하는 동안 서서히 뒷걸음질 친다. 소리가 들리며) 충구를 자신의 이마에 들이치고, 부장이 수화기를 내려 놓는 순간에 뒷수발의 방아쇠를 당긴다. 총소리와 함께 조영 out)

(바자면, 제1장과 같은 무대, 행정각부의 음악이 흐르고, 좌측면 교각위에 서 있던 오한주가 힘차게,

“이땅 한반도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사랑하는 조국의 흙을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사본사본 다리를 건너 무대 가운데로 나옴. 그녀를 에워싸는 학생 7, 8, 1, 2, 3)

오한주: (관객을 향해) 저는 결코 모험을 즐기는 소용무의자가 아닙니다. 이땅 한반도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사랑하는 조국의 흙을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교각을 가리키며) 사본의 다리를 통과하도록 허락한 남한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한참) 이제 통일은 더 이상 꿈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한 주를 지켜보고 노래 “조국은 하나다”를 선창하면, 합창하는 학생들, 서서히 막이 내려남)

“꿈작!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군. 이 빨갱이 새끼! 손들어!”

“내가 정보부의 기밀을 알고 있는 놈을 순순히 놓아주리라고 생각하나? 너같은 놈 하나 죽여도 난 끄덕없어!”

(다시 무대 전체가 밝아지고)

비서B: 보셨습니까? 부장님은 오히려 만장모색 세력들에게 부장의 밑바를 제공했습니다. 마땅히 그 책임을 지야 합니다.

비서A: (중에서 권총을 빼어 들고) 이자식이 어디가 함부로 이제, 순 빨갱이 하나! (충구를 B의 머리에 겨누는)

부장: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긴장 진 놈!

(앞서 왼쪽이 있고, 담배를 피우는 부장)

비서A: 각하! 이놈의 머리를 박살 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들 갈매) 각하! 작기 수상이신 각하를 모독합니다.....

부장: (결정을 하듯 담배를 비비고) 충을 치우게.

비서B: (이런놈은 본래를 보여줘야 합니다.)

부장: (명령하듯) 내가 알아서 할테니 이서 충을 치워.

(모택동과 충을 가슴에 걸어넣는 비서A, 이때 울리는 전화벨)

부장: (수화기를 들고) 예! 수상각하(부총재) 지금 곧 가서 뵙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비서A에게) 잠시 다녀와주세요. (서둘러 퇴장한다)

비서A: (뒤에다 대고) 알겠습니다, 각하!

(비서B가 크게 숨을 쉬더니, 신세로 책상위의 종이대 펜을 가져간다)



고) 꿈작!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군. 이 빨갱이 새끼! 손들어!

비서B: (천천히 손을 올리며) 나가게 해 주시오.

비서A: (가소롭다는 듯) 내가 정보부의 기밀을 알고 있는 놈을 순순히 놓아 주리라고 생각하나? 너같은 놈 하나 죽여도, 난 끄덕없어. (비서A가 미소를 띠며) 다가가 B의 뒤쪽에서 충구를 들이대려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비서A의 손을 막아내는 B. 바닥에 떨어진 피스들을 먼저 집는 B. 사적이 되는 A)

비서B: (충을 들고) 마음대로 직접 보시지 중진(忠)나!

비서A: (금방 비굴해지며) 자네 왜 이러나. 아한 남들이었네, 정말이

“영업현장·연구소·공장을 컴퓨터로 완전자동화할 수는 없을까요?”

이제 컴퓨터가 연구소와 공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기술을 통해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휴먼테크의 인간과 호흡하는 첨단기술

제품설계에서 생산, 판매까지 기업경영 전체를 컴퓨터로 적적 해내는 CIM- 삼성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휴먼테크가 펼치는 기업의 미래상, CIM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이란? 제품설계, 생산, 판매까지 기업경영 전체를 컴퓨터로 적적 해내는 CIM- 삼성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휴먼테크의 목표는 “인간행복”입니다.

휴먼테크 삼성전자

제27회 외대문학상 가작

희곡부문

갈등의 사실성, 강렬함 제시해야

심사평

희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이다. 갈등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인물에 의하여 야기된다. 그 갈등의 힘이 곧 극의 힘으로 구현되는 것이요, 그 갈등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얼마나 현실적이냐가 관객에게 작가가 예기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가, 없느냐를 결정한다.

이것을 갈등의 사실성(reality)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희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말-죽, 악인이 천인이 되었거나,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거나 하는 따위-이 아니라 바로 갈등의 과정이다. 갈등 자체가 사실적이고, 강렬해야만 비로소 그 결말은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이 갈등은 갈등하는 양자가 호적수익에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은 그 결말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관객에게 아무런 감동도 전달하지 못한다.

이 갈등은 갈등하는 양자가 호적수익에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은 그 결말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관객에게 아무런 감동도 전달하지 못한다.

“이땅 한반도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사랑하는 조국의 흙을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오한주의 대사이다. 이 대사는 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대사를 통해 그는 한반도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더 이상의 희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정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입선소감

이 작품을 내시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현실에 대해 무감각했었습니다. 출품을 앞두고, 난, 진정한 민주주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출품해나 봤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들에게 일러부하하주자라고 낙인 찍혔던 나는 캄보디아에서 보내는 마지막 가을에 저서 독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금까지도 내친친의 삶에 대해서 어진지 하나 확신을 갖지 못했으니 말이다. 미네르바에 존자 얹었다가 최한 한 마음으로 집에 앉았다. 배운 것, 읽은 것, 들은 것, 아는 것, 모르는 것, 모든 것을, 줄줄이 실어 주겠다는 작보사 기자의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급하게 답장을 보냈다.

“천사의 귀로”는 방학한 여대생의 귀환을 둘러싸고 논쟁의 사안을 역설적으로 가상해서 표현해본 작품이다. 희곡을 공연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점을 염두에 두고 썼다. 급하게 휘갈기는 성격으로 인해 치밀한 구성과 계산된 대사가 부족했다는 자평을 해본다.

격정의 시대였다고 흔히 말하는 80년대가 저물어 간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현실주의가 수없이 많은 민중의 희생에 있었지만 사실은, 가부장제에 대한 부유했던 내세 민주와 통일에 희생을 갖게 만들었다. 더 이상의 이런 희생도 없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에 서었다. 그래서 현재의 정권과 위정자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 작품에 부어 주고자 했다. 다가오는 90년대를 재빨리 지나간 아흔 시대가 되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1학년 학생모집 요강